

세계지방자치동향

2020. 4 제9호 (특집호)

- (독일) 독일 지방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대응 현황
-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의 COVID-19대책
- (미국) 텍사스 주 Dallas County의 COVID-19 현황 및 대응
- (일본)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COVID-19 대응과 임파워먼트
: 홋카이도, 와카야마현, 오사카부를 사례로
- (일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대한 일본 정부 및 도쿄도의 경제대책

오스트리아의 COVID-19대책

개요

- 3월초 오스트리아는 코로나바이러스 대 감염에 직면하여 의회를 통과한 법과 행정부, 관할 부처, 지자체장들의 명령을 전방위로 시행하기 시작
- 다양한 조치들은 사태 추이를 관찰하며 지속해서 보완, 추가되고 현재도 진행 중임

진행 상황과 각종 정책 현황

1. 연방 안행부, 사회·보건·요양·소비자 보호부의 대국민 보호 조치 발표

○ 일반사항

- 사회적 거리 두기
- 기침 시 입을 가리고 얼굴 만지지 말기
- 가급적 자주, 하루에 몇 번씩 30초 이상 손 씻기
- 증세가 있으면 집을 떠나지 말고 건강 상담 핫라인 '1450'에 전화할 것

○ 상세사항

- 2020년 3월 16일~4월 13일까지 집 밖 통행금지

예외) 즉각적인 생명이나 재산상 피해나 지장이 있을 때,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피치 못할 직업을 영위하고 고용 주의 허락이 있는 때, 본인과 타인을 위해 식품을 구매하거나 전달할 때, 장례식과 결혼식 등 가족끼리 긴급 필요성이 있을 때, 혼자 혹은 동거인, 개와 잠시 산책할 때, 일반적으로 5인 이상 모임이나 모든 행사는 금지

- 통금 조치와 아울러 군경을 투입,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대체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민방위 군을 재소집, 전국적으로 3,500명 차출하여 위생병, 사회 서비스, 코로나 테스트 요원으로 투입함. 물류 수송에서 생긴 인력 공백을 메꿈. 일부 대사관 경비를 담당할 경찰의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 군인을 투입하기도 함. 현재 대체복무 중인 자는 기간을 3개월로 연장. 전역한 민방위군을 재투입, 현역보다 수당을 높게 책정하자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현재 헌법재판소에까지 올라가 판단을 기다리는 중. 외출 단속은 경찰이 하며 약 2,000건 이상의 위반 사례가 발생, 벌금(최고액 3,600유로) 처분. 통금 조치로 인해 사재기 현상이 급증, 적은 인

력으로 슈퍼 진열대를 채우지 못하자 민병대 동원, 중앙 물류창고에서 물품 조달.

- 2020년 3월 17일~4월 13일까지 식당, 가게, 상점, 체육관 등 영업 중단
예외) 약국, 식품 가게나 마트, 위생, 긴급용품 판매처, 요양원이나 돌봄 센터, 장애인 서비스 시설, 수의 서비스 센터, 응급 서비스 센터, 비료나 사료 농업 물품 가게, 주유소, 대중교통, 배달 서비스, 신문 판매대, 폐기물 처리장, 정비소 등이 해당. 또한, 병원, 양로원, 유치원, 청소년 보호 시설, 캠핑장이나 대중교통 손님에게 제공할 목적의 부속 음식점도 예외에 해당
- 대중교통 이용 시 상호 간에 최소 1m 간격 유지
- 2020년 3월 10일~4월 13일까지 다음 국가들의 입국 금지
중국, 한국, 이란,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
예외) 화물기, 긴급 투입기, 응급의료 항공기 등
- 2020년 3월 19일~4월 13일까지 항공 입국 시 14일 격리 조치
오스트리아 국적자와 체류 허가 소지 외국인은 오스트리아 입국 시 14일간 자가 격리소에 머무를 것
예외) 지체 없는 출국이 확실한 자
- 쟁쟁 조약국이 아닌 제삼국 국적자 등은 입국 금지
예외)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 요양사, 환승객, 4일 이전에 발행한 건강증명서를 소지한 자나 14일 자가격리를 수행할 자
- EU국민은 입국 시에 건강증명서 제출
증명서가 없거나 즉시 출국이 불가능할 경우 14일 자가격리에 처함
- 자국민 픽업
전 세계 약 100개국에 흩어진 약 4만여 명의 오스트리아 국민을 국내로 송환 시작. 귀국 직전 체온 측정. 귀국 후 의심이 갈 경우에만 격리
- 지역 봉쇄 조치
티롤 주 전 지역, 케른텐 주는 하일리겐블루트 한곳, 포랄베르크 주의 여러 곳, 잘츠부르크 주의 여러 곳
- 국경 컨트롤 재도입
이탈리아, 독일, 스위스와의 국경 통제를 4월 7일까지; 슬로베니아와 헝가리 국경 통과 제한은 5월 14일까지; 이탈리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독일, 헝가리와 슬로베니아 국경 지역 일부는 완전 봉쇄(출·퇴근자가 많으므로)하고 지정한 일부 도로만 통과 가능

- 철도 교통 중단

이탈리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간을 오가는 철도 중단

예외) 화물열차

2. 교육부의 원거리- 온라인 교육 조치

- 3월 16일부터 모든 초등, 인문계 하급 과정과 특수학교는 수업 중단

- 부모나 보호자가 집에서 돌볼 여건이 되지 않는 학생은 학교나 유치원에 등교. 몇몇 주에서는 이 숫자가 1,000명 정도, 일부 주에서는 약 20명 정도임

- 교사는 홈 러닝 교재를 작성, 학생들에게 배포. 부활절 이후 학교 재량으로 추가 자료를 보충할 것인지 결정

- 새롭게 개발한 소통 형태로 컴퓨터를 통해 실시. 랩톱이나 컴퓨터가 없는 학생들에 대해 대여 내지 지원. 온라인 수업 프로그램이 초기에 접속 과부하나 온전치 못한 프로그램으로 순탄치 않았으나 수정, 보완됨

- 인문계 상급 과정과 고등학교들은 3월 16일부터 수업 중단

학생들은 위생 규정을 준수하면서 등교하여 필요 문서나 홈 러닝 교재를 픽업할 것. 4월 12일 부활절이 끝난 후 추가 작업 여부는 학교 재량으로 결정. 직업 학교(약 14~18세 학생)들도 새 교재를 Distance-Learning으로 추가 작업할 것

- 각 주의 모든 학교마다 학교 심리학자, 사회복지사들로 구성된 핫라인을 개설

9~18시까지 상담. 초기에 무수한 유선 상담이 이루어짐

- 한국의 수능에 해당하는 대입 학력평가 마투라 실시

5월 말에 1주 간격으로 두 번에 걸쳐 실시 예정이며 기존 몇 과목에서 독일어, 수학, 외국어 한 과목으로 축소되어 실시. 구술시험은 취소함

- 대학과 연구소 휴강

- 3월 9일과 3월 16일 사이에 시청각 자료, Distance-Learning/ Home Learning 으로 전환하고 부활절까지 휴강하며, 이어 6월 말까지 추가 연장됨

- 시험은 온라인, 혹은 긴밀한 접촉을 통해 실시, 논문으로 대체하거나 학교, 교수 재량으로 연기함

- 대학도서관, 체육관은 폐쇄 조치하며 교수들은 개강 직후와 3월 9일 이전에 코로나 우려로 세미나나 강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학생들에 대해 출석률 등을 관대하게 처리할 것을 권고

3. 정부, 연방 보건부의 코로나 대책

- 3월 10일을 기점으로 봉쇄와 통행 금지 등 정부 대책 발표 시작
 - 2월 25일 티롤의 호텔에서 출·퇴근하며 근무하는 이탈리아인 2명에게서 첫 감염 발생. 호텔 봉쇄. 직후 WHO는 팬데믹 가능성에 대해 발표. 다음 날 빈에서 3명의 감염자 발생. 이어 각 주에서 확진자 발생 시작. 3월 2일, 이미 시중에 마스크, 소독약이 동나고 이 무렵 야당 당수 웬디 바그너는 1,000명 이상 모이는 행사를 허용하지 말 것을 촉구. 이어 이 숫자는 5인 이하로 단축됨. 스포츠, 예술, 종교 행사를 포함한 모든 모임은 취소, 불허됨
 - 3월 13일 통행금지 발표와 동시에 사재기가 시작되고 제때 진열대가 채워지지 못하자 민병대를 동원, 대도시 유통창고에서 생필품을 조달함. 화장지, 쌀, 면류와 육류제품이 바닥남. 이쉬글, 갈튀어 등 스키 관광객이 밀집한 티롤, 포탈베르크와 잘츠부르크 지역에 봉쇄령 발동, 이는 부활절 직전인 4월 8일경에야 해제됨. 또한 이 지역의 2020 스키 시즌을 조기 종식 선언함
 - 3월 16일 부활절 직후까지 모든 상점 영업 중단 발표. 슈퍼마켓이나 식품점, 약국, 병원 등만 개원하며 집수리와 관련된 수리공들은 출장만 가능
 - 부활절 직후인 4월 13일부터 400평방 이하의 소점포들은 개점 허락하고 5월 2일부터는 조심히 대형 쇼핑센터들도 개점 예정. 감염 커브가 상승하면 이 조치들은 즉시 원점으로 돌아감
 - 법적 근거로는 3월 15일 의결된 “COVID-19법”. 이 법으로 COVID-19위기 극복 기금을 조성하고 바이러스 확산 방지조치를 명하고 법적인 임시예산과 노동 시장정책 재정법, 노동 시장 서비스법과 노동 계약호환법을 개정하고 이는 연방 상·하원에서 의결됨. 같은 시기, 인스브룩 검찰은 다발 발생지였던 스키 휴가지 이쉬글에 대해 “전염으로 인명을 위협하게 한 혐의”로 조사 착수
 - 기존에는 의사가 발행하는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하고 약을 샀으나 대면 없이 전화로 처방전을 신청하면 의사는 고객이 지정하는 약국에 메일이나 팩스로 처방전을 보내며, 본인이 직접 픽업하거나 약국에서 배달해 주기도 함. 배달료는 11유로. 기존에는 일부 약이나 고가의 의료 진단은 보험공단으로부터 승인 도장을 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복잡한 행정절차를 대부분 생략, 면제하거나 온라인으로 발행
- 마스크 등 의료용품 문제
 - 마스크의 필요성을 부정함. 문화 차이도 있으나 수급 문제에 봉착해 일반인보다 의료진에게 우선 보급하려는 정책으로 보임. 평소 독일에서 의료용 마스크 공급을 받았으나 급증하는

환자 수로 독일에서 오스트리아로 향할 마스크들을 압류하자 오스트리아 병원 수술들이 거의 모두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짐. 3월 중 개인이 소유한 마스크나 일회용 장갑, 소독약 등을 긴급히 병원에 기증해 줄 것을 방송함

- EU 국가 내의 계약 위반에 대한 항의, 협의를 거쳐 독일에서 3만 장의 마스크를 의료진용으로 긴급 방출하였으나 유럽각국의 국경봉쇄로 인한 대환란 때문에 트럭이 국경을 오랫동안 통과하지 못한 사태도 벌어짐. 차후 오스트리아 항공이 중국에서 의료물품을 수송해왔으나 대부분 비상 지역인 티롤과 이탈리아로 넘어감
- 과거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구매해 2016년 유효기간이 지난 마스크 수백만 장을 연방 군대를 투입, 철저한 검사를 통해 사용 가능한 160만 장을 배포하였으나 이는 FFP-1클래스로서 바이러스 차단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음
- 마스크 조달이 심각하여지자 정부는 자급자족 가치를 내세우고 국내 회사를 선발, 의료진 마스크를 생산케 하나 원료 부족으로 전 국민 보급은 불가능. 각 가정에서 천으로 마련하려고 권고
- 마스크 사용에 관한 논란은 3월 말, 4월 초에 본격화되고 4월 6일부터 슈퍼마켓에서 중국에서 급수입한 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함. 일부 부녀자들은 가정에서 천 마스크를 제작하여 약 0~10유로로 시민들에게 팔기도 함. 정부는 유통업체들이 마스크를 구매하여 고객에게 배포할 것을 지시했으나 일부 유통업체는 반발, 고객으로부터 1유로를 받음
- 정부는 천 마스크가 본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감염자가 주변인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림. 4월 14일부터는 대중교통이나 대형 쇼핑센터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바이러스 테스트와 감염 속도 완화 정책
 - 수상 세바스티안 쿠르츠는 급속도 감염으로 인한 병원 포화 상태, 사망자 급증을 보인 중국식 감염보다 물결 모양의 점진적 감염을 당면 차선택으로 선택, 의료 시설과 중환자실 포화 상태를 막고 가파른 상승 곡선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초기에 수상은 우한 발병 시에 즉시 국경 봉쇄를 통해 감염사례를 줄인 대만을 모범으로 한다고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대만 언급은 사라짐
 - 시간 소요가 많은 테스트보다 신속한 결과를 가져오는 항체 테스트를 우선 했고 후자의 테스트 결과가 오류가 많은 점은 4월 말까지 보완하기로 함. 테스트 대상은 발열 상태가 며칠 계속되는 자로서, 구급 번호로 먼저 의사를 집으로 부르고 테스트와 검진을 거쳐 격리 내지 입원 순으로 이어짐. 의료진의 다운을 막기 위해 초반부터 감기나 기침, 기타 증세로 동네 의원이나 병원을 찾지 말 것을 강력히 지시함

- 대민 상담과 불안 해소를 위해 설치한 핫라인은 초기에 하루 7만 건의 문의사항들이 폭주함. 오스트리아의 병원들은 대부분 국공립이며 사립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정도. 수도 빈은 프란츠 요셉 병원을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이어 오토 바그너 병원, 도나우 병원 등 시립병원들로 확대 지정함. 최대인 빈 국립대학병원은 코로나에 걸린 기저 질환자 중, 마지막 단계의 위중 환자용으로만 병상 비치
- 병원들은 일반 환자 전용과 의료진 전용 입구를 별도로 설치, 의료진 감염을 원천 봉쇄코자 하였음. 오스트리아 전체 병상 수는 약 64,000개 그 중 1,600개는 내과용. 박람회장과 체육관을 코로나 환자용으로 개조하여 수천 개의 병상을 확보했으며 경증 환자가 급증할 경우 임시 폐쇄해 둔 재활병원도 생활 치료시설로 사용할 예정. 현재 중환자 병상은 980개 잔여. 확진자 감소 기대
- 재정 지원 정책
 - 연방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380억 유로 패키지를 배정. 바이러스 연구로 2천 2백만 유로 배정. 1억 유로를 요양비로 책정. 가톨릭계에서는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이들을 위해 백만 유로를 박애 단체 카리타스에 제공
 - 대학과 병원, 감염학 연구소 등은 제약회사와 공동으로 치료제나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함. 주로 독일, 덴마크 기관과 공동협력함. 정부는 개발 지원금을 신청할 시, 약 2천 2백만 유로는 치료제 개발, 1,000만 유로는 혁신 개발비로 편성, 지원함
- 요양사 문제
 - 요양사들은 주로 인접 국가인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헝가리, 폴란드인들로서 국경 봉쇄로 인해 입국 금지에 처함.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일부만 데려오고 격리 기간도 부여함

4. 상공회의소, 경제부, 재무부, 지자체의 기업과 상공인 공동 지원책

- 4월 13일까지 상점과 영업장 폐쇄, 통행금지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책
 - 관광업, 항공사, 운송사, 호텔과 요식업소 등 서비스 산업부터 큰 타격을 받음. 봉쇄와 통금 조치 후 1달도 되기 전에 해고, 휴직이 폭증함. 일부 기업들은 파산 우려
 - 3월 14일 정부는 경제 위기 대책으로 일반적 지원 40억 유로, 긴급 지원 150억 유로, 대출 지원 90억 유로, 단축 근로(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월급을 약간 낮추고 그 중 80%를 정부가 지원, 고용주는 20% 지급) 4억 유로, 긴급 소상공인 기금 20억 유로, 세금 할부 100억 유로 등 편성함. 긴급 소상공인 기금 20억 유로는 매출이 하락한 소상공인들이 2020년 말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활비 지원을 받음. 1인 회사 등 소상공인에게는 신청 시 까다로운 과정을 생략, 즉시 검토를 거쳐 한 달에 1,000유로씩 3개월 지급하며 직원을 거느린 소기업의 경우

케이스에 따라 2,000유로씩 3~6개월간 지급

- 관광업계의 도산을 막기 위해 정부는 1억 유로 보증금을 배정하여 예약 취소에도 불구하고 직원 급여나 보험료를 계속 지불해야 하는 업체들을 지원
- 3월 20일 AMS 노동 고용서비스에는 십만 명의 실업자가 등록함. 오스트리아 항공과 라우다 모션 등이 운항 중단. 승객 감소로 인해 오스트리아 국철도 1,000명 직원에 대해 단축 근로를 시행. 4월 초까지 실업률은 2019년 4월 대비 50% 증가함. 야당은 실업자 보조금을 더 높이 지급할 것을 요구
- 코로나 조력 기금은 4월 8일부터 신청. 90~100% 은행 대출 개런티를 부여. 매달 지출되는 고정비 후원도 4월 15일부터 신청 가능
- 정부는 실업이나 해고를 막기 위해 기업 측에 단축 근로를 허락함. 파산이나 도산 신청 기간도 연장해줌
- 봄부터 개시되는 레스토랑들의 야외 카페 샤니가르텐 사용료를 지자체들은 면제해 줌
- 대학교도 생계가 곤란한 학생들에게 지원금을 신청할 것을 회람으로 통지함
- 경제계에서는 코로나 위기가 지속함에 따라 약 2~5%의 경기 위축을 예측함
- 상공회의소, 근로자 회의소, 노동조합 등은 총력을 다해 회원들에게 정보 서비스를 제공
예) 국내 마스크 공급이 불가능하여지자 자체 사이트들을 통해 회원들에게 마스크 구매 가능성을 알려줌. 페이스 쉴드 5개에 121유로, 혹은 167유로 등
- 전력공사나 에너지 공단 등은 요금을 미납한 세대에 전기, 수도를 계속 공급함
- 보험료는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의 협의에 기초, 납부를 일시 중단하거나 합의하게 함
- 상공인 회비 등 면제
- 주택 임대료 미납 시에는 납부 기한을 6월 말까지 보류해주고 임대인의 계약 해지를 막음
- 각종 협회나 단체들이 운영하는 스포츠 시설들의 임대료 약 2백만 유로를 빈시가 부담함

5. 사회 각계 조치들

- 마스크가 없어 감염 사례가 잦은 마트 직원들을 위해 계산대에 플렉시 유리 칸막이를 설치
- 현금보다 카드 지급을 권하며 처음에는 25유로 이하 구매 시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다가 최근 들어 50유로 구매금액까지는 입력 없이 카드를 갖다 대기만 하게 함. 작업상 접촉 가능성을 최소화함
- 아스파라거스 등 봄 작물 수확에 투입하던 동유럽 국가의 시즌 노동자들이 입국하지 못함에 따라 빈 근교 농장들은 밭일을 도와줄 것을 시민에게 호소
- 지자체마다 노인들을 위해 음식 패키지와 택시 쿠폰(50유로)을 제공

- 영업하지 못하는 일부 호텔은 음식물을 무료로 원하는 가정에 배달하기도 함. 민간단체나 협회, 개인들은 외출하지 못하는 노약자에게 물건 구매, 배달 서비스 제공
- 빈 국제마라톤, 봄 축제주간, 유럽 최대 야외 축제인 도나우강 축제, 각종 공연과 행사가 중단, 취소되면서 공연료, 입장료는 환불하거나 쿠폰으로 대체되고 예술가들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음
- 박물관들은 각자도생의 길로 온라인으로 박물관을 안내하기도 함. 연극, 오페라 극장들도 카페라 공연으로 대체
- 빈 소년합창단은 홈 러닝으로 성악 연습. 막대한 수입 누락으로 기부금 호소
- 국립 정원들은 폐쇄, 시립 공원 등만 출입 가능. 인도가 좁아 행인들과의 간격을 1, 2미터로 유지하기 어려워지자 빈에서는 네 군데 도로(플로리아니 가세 등)를 지정, 차도를 인도로 확대하기도 하고 이어 더 많은 도로로 확대 실시함
- 대중교통 이용이 급격히 줄고 자전거나 자가용으로 출근하는 이가 늘자 임시방편으로 유료 주차 구역을 무료로 전환함
- 국영방송, 연방 수상청 혹은 주요 부처에서는 언론인, 앵커나 담당자들이 감염 위험으로 인해 보도나 국정 수행에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해 자체 격리공간을 조성, 자가 격리함.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1, 2주 간격으로 동료와 교대함. 인터뷰는 카메라를 통해서만 함
- 빈 에너지 전기 가스 공사, 소각장, 발전소 등도 담당 직원들이 도시의 주요 에너지 인프라 다운을 막기 위해 자가 격리 근무함
- 빈의 20여 개 호텔들은 관광객이 전무해지자 하루 6유로로 오전 8시까지 밤 22시까지 홈 오피스로 방을 제공
- 국영 TV에서는 매 광고시간마다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본인과 조부모의 건강을 위해 조부모를 방문하지 말 것”을 권고함. 광고명은 “나, 우리 할머니께 안가요”임
- 연방 대통령 반 데어 벨렌은 대국민 연설에서 부모와 조부모를 위해 방문을 삼가고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인사도 악수가 아닌 동양식 인사를 하라고 권고

6.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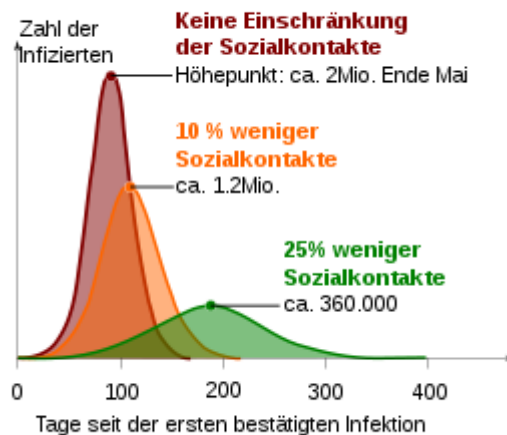
- 3월 29일, 8,291명 테스트에 1,299명 확진자에서 4월 1일 10,482명으로 증가
- 유럽국 중 유일하게 약 1,544명에게 무작위 테스트를 실시, 무증상 감염자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이 과정에서 0.33%가 감염되었음을 확인. 따라서 4월 10일 전후 공식 감염자 13,500여 명을 포함하여 전체 감염자 약 28,500명 이상으로 추정하나 역시 변수가 많아 단언하기는 어려움

- 4월 11일 : 확진자 13,800명, 완치자 6,600명, 사망자 350명. 위중환자 250명, 위중환자 포함 입원환자 1,000명

문제점

- 국제화 시대에 발발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20년 전후 제조업을 개도국이나 후진국에 넘겼다가 비상시에 기존 물자조차 공급받지 못하자 국수적인 목소리가 높아짐
- 자체 생산을 도입하고 국경을 닫으며 EU국가 간의 신뢰마저 일시에 무너져 위기 이후에는 각국 정치가 재편성될 가능성 있음. 위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일부 국가들의 채무와 나태함이 폭발적으로 부정적 측면을 보이면서 유럽 공동 기금을 조성하는 부분에서도 협의에 이르지 못함
- 자국 위주, 폐쇄 정책, 배타정책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있음. 어렵게 구축되어온 공동체 의식이 다시 확립되어 위기를 극복하고 공존의 미래를 지향할 추진력 필요

Coronavirus - „Worst Case Szenario“
Annahme: 60-70% der Bevölkerung in Österreich betroffen



Quelle: DiePresse tv, basierend auf TU Wien/dwh

| 그림 1 | 사회적 거리를 두지 않을 경우 국민의 60~70%가 급속 감염, 의료진의 과부하 야기

출처: https://de.wikipedia.org/wiki/COVID-19-Pandemie_in_%C3%96sterreich



출처: ORF 국영방송. 빈의 스테판 성당 부활절 미사. 추기경 단독으로 미사 집행. 신자석은 사진으로 대체

참고

<https://www.sozialministerium.at/Informationen-zum-Coronavirus/Coronavirus-oesterreich.gv.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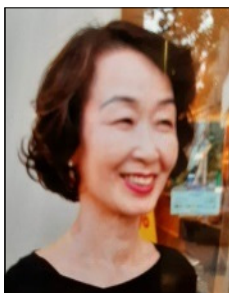
https://www.bmbwf.gv.at/Ministerium/Informationspflicht/corona/corona_status.html

<https://www.wko.at/service/aussenwirtschaft/coronavirus-wirtschaftskammer-als-anlaufstelle.html>

<https://www.salzburg24.at/news/oesterreich/coronavirus-chronologie-der-covid-19-ereignisse-85125766>

<https://www.noen.at/>

<https://kurier.at/>



김정원 통신원

(오스트리아 법정통역 번역공증인)

kimvienna@hotmail.com